헨켈, 세계 존경받는 기업 유럽 17위

글로벌 생활·산업용품 생산기업 헨켈(Henkel)은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(Fortune)이 선정한 <2012년 세계에서 가장 존경 받는 기업> 중 유럽 17위로 선정됐다고 3월15일 발표했다.

헨켈은 2012년 <비누·화장품> 산업 부문에서 세계적으로 7위를 차지하는 등 2004년부터 9년 연속 상위권에 오르며 글로벌 리딩기업으로서의 면모를 인정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.

특히,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및 친환경제품 개발을 통한 <지속가능경영>을 선도하며 <사회적 책임> 평가 항목에서 3위에 올랐다.

포춘의 선정은 헨켈이 136년 동안 차별화제품과 서비스를 꾸준히 고객들에게 제공해온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.

포춘이 1997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<세계에서 가장 존경 받는 기업> 순위는 기업의 명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.

순위는 58개 산업부문에서 4000여명의 글로벌기업 경영진, 관리자 및 금융전문가들이 혁신, 인력관리, 자산이용, 사회적 책임, 품질 경영, 재무 건전성, 장기 투자, 품질, 글로벌 경쟁력 등 9개 평가 항목에 기초해 평가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2/03/15>